

#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정예배>



# 가정예배 서약서

##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 목차

## Contents



7·8·9월호 소개 - 예언서 읽기	04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6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7

###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27주 07.02 ~ 07.08	나를 환히 알고 계시는 주님!	10
28주 07.09 ~ 07.15	아이에게 가르칠 것	12
29주 07.16 ~ 07.22	굳게 서기 위한 조건	14
30주 07.23 ~ 07.29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16
31주 07.30 ~ 08.05	메시아의 노래	18
32주 08.06 ~ 08.12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24
33주 08.13 ~ 08.19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요	26
34주 08.20 ~ 08.26	분노가 다하기까지	28
35주 08.27 ~ 09.02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30
36주 09.03 ~ 09.09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36
37주 09.10 ~ 09.16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	38
38주 09.17 ~ 09.23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40
39주 09.24 ~ 09.30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 교회	42

# 예언서 읽기

## 7~9월호를 시작하며

그려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3-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가 2023년의 세 번째 책을 발간합니다. 지난 2분기 동안에도 영력교회의 모든 성도가 매일 매일을 오이코스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다음세대가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름 방학을 맞고 각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으로 뜨거울 이번 3분기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온 가족이 말씀따라 계속 행진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세 번째 패밀리데이는 지혜서와 예언서를 다루게 됩니다. 시편과 잠언이 속하는 지혜서의 경우 ‘하루 한 장 읽기’ 등 비교적 가정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들은 시시때때로 묵상하기에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잘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 번째 패밀리데이에서 다룰 예언서 말씀들은 많이 낯설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언서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예언서’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멀리 떨어진 시대의 사건들을 예언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것(豫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預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며, 새언약 시대의 일정한 특징들을 예견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야적 예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예언서의 내용은 대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들 주변 다른 나라들의 “임박한” 미래였습니다.

### 2. 오늘날의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예언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언자들처럼 그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언서’는 신탁의 말을 모아놓은 수집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연대기 순으로 내용이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예언이 그 시작과 끝이 알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배경의 맥락이나 설명이 없기도 하고, 대부분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독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실제로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는 불명확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 3.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한 역할과 기능

첫째, 예언자들은 언약 시행의 중재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언약의 시행 여부에 따라 복(생명, 건강, 번영, 풍작, 존경, 안전 등)과 저주(죽음, 질병, 가뭄, 기근, 위험, 파멸, 패전, 추방, 빙곤, 치욕 등)를 선포하였습니다.

둘째, 예언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탁 서두나 말미에 규칙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문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 그대로 1인칭으로 직접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표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당시에 사회적 직책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읽는 예언서는 단순히 예언자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전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자신들이 창안해 낸 것이 아닙니다. 각 예언자들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표현된 방식이나 어휘가 다를지라도 그 표현된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복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 4. 예언서의 주제와 주요 내용

각 예언서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약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언약 위반에 대한 심판,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너희 (유다/이스라엘)는 모세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심판 너머에는 이스라엘/유다는 물론 열방에게도 영광스런 미래 회복의 소망이 있다.

예언서는 주제가 무겁고, 표현 방식이 낯설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묵상해 가다보면 그 속에는 방황하는 자식을 향하여 애타게,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23년 세 번째 패밀리데이 가정예배 책자로 예배하며 이 예언서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http://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 7 JUL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맥주감사  
주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이달의 찬양

## 아름다운 마음들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C F C G

1.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 주의은혜나누며 –

2.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 우리뭐라말할까 –

5 C F C G C

예수님을따라사랑해야 – 지 – 우리서로사랑해 –

그때에는부끄러움없어야지 – 우리서로사랑해 –

9 F C F D/F♯ G

하나님이가르쳐준한가지 – 내이웃을내몸과같이

13 C C7/B♭ F/A Fm/A♭ C/G G C

미움다툼시기질투버리고 – 우리서로사랑해 –

7/2-8

1주 가정예배

# 나를 환히 알고 계시는 주님!

시편 139:1,8,10,12 [다윗의 노래]



이 달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9P



말씀 읽기 - 시편 139:1,8,10,12 [다윗의 노래]

- 01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 08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 10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 12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 생각하기

- Q1. 요즘에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 Q2.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인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가족들이 말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어려움에 놓인 가족을 도와주세요.



## 말씀듣기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일상에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여겼던 사람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둠이 내 삶에 가득 찬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왕이 어느 날 돌변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억울하게 오랜 세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의 목숨을 노리다 보니 피신해야 했고, 그때 어떤 신하로부터 저주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가장 높은 곳)로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가장 낮은 곳)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결국에 자신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도록 빛이신 주님께서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우리 가정보다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7/9-15

2주 가정예배

# 아이에게 가르칠 것

## 잠언 22:6



이 달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9P



### 말씀 읽기 - 잠언 22:6

- 06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 생각하기

- Q1.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 Q2.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셨던 하나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말씀듣기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아지신 것으로도 부족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시 종들이 하던 다른 사람의 발 닦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과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시당하던 아이들과 여자와 아픈 사람들 등 소외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가로막으며 방해할 때, 예수님은 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 옆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권위를 내세우며 자녀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눈을 맞추며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참된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깨닫고 따라나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살아냄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우리 가정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길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 된 저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16-22  
3주 가정예배

# 굳게 서기 위한 조건

이사야 7:9



이 달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9P



말씀읽기 - 이사야 7:9

- 09 예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생각하기

- Q1.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인 적이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 Q2.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듣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나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위기를 마주 할 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앗수르였습니다. 앗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자신들도 점령당할까 걱정되어 앗수르를 막고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동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손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동맹을 맺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남유다를 압박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편에 붙어 앗수르에 맞서지 않으면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지요. 남유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저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어야 되는 것인지 갈등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이야의 아들이다.”<sup>7-9</sup>절 하나님은 고작해야 사람인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꾸민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남유다를 독려하십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마주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일지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작해야 사람의 꾀에 불과하고, 그 꾀는 성공하지 못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보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하나님, 마주하는 두려운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23-29  
4주 가정예배

#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사야 33:2, 10



이 달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9P



말씀읽기 - 이사야 33:2, 10

- 02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 10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생각하기

- Q1.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워진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Q2.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일을 해결해주셨나요? 함께 나눠보세요.



### 말씀듣기

유다가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거스르는 정책을 펴습니다. 그러자 강한 나  
라인 앗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돌아가달라고 부탁하며 원하는 것  
은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앗수르는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라는 막대한 재물을 유다 왕  
에게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  
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도 모두 벗겨서 앗수르 왕에게 주  
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  
은 절망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아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  
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  
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곤경에 빠진 것도 알  
고 계시고,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앗수르의 조롱을 들으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  
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  
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서 앗수르 군의 십팔만 오천 명을 죽이시고<sup>왕하 19:35</sup> 남유다를 구원해주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기도는 절망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  
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날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인 것이지요. 우  
리 가정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들  
의 긴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이 이제  
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이 상황에서 견뎌내실 것입니다. 우  
리 가정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30-8/5  
5주 가정예배

# 메시아의 노래

이사야 61:1-3



이 달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9P



말씀읽기 - 이사야 61:1-3

- 0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 02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 03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 생각하기

- Q1.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 Q2. 내 주변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말씀듣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오랜 포로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그렇지만 누가 과연 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어 그들이 바라는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행복한 미래일까요? 과거에 그렇게 커다란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갇혀 있던 자들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은 더 이상 슬프고 비참했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 아픔과 상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밝은 미래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즐거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낯선 땅에서 불쌍한 포로 신세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우리를 향해서도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을 선포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지금 어떤 커다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의 다른 이웃에게도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의지가 되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나를 가로막는 문제와 내가 받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과 걱정을 기쁨과 희망의 노래로 바꾸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여 회복되고, 그 구원의 약속을 주변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 메모 MEMO



# 8

## AUGUST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광복주일

광복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이달의 찬양

## 내 안에 부어주소서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 C $\sharp$ m F $\sharp$ m C $\sharp$ m

내 안에 — 부 어 주 소서 — 성령의 — 충만한 기름을 —

5 D A Bm E7

내 안에 — 충만케 하 소서 — 성령의 — 기름으로 —

9 D Dm C $\sharp$ m F $\sharp$ m

내 계기—름 가득할—때 주의복—음전 할 수 있—네 —

13 D Dm Bm E7

내 계기—름 가득할—때 주의사—랑베푸네 그날에

17 A E/G $\sharp$  F $\sharp$ m C $\sharp$ m

우리주—님께서 — 밤중—에 찾아오—실때에 —

21 1. D C $\sharp$ m F $\sharp$ m D E

기름준—비된자만이 — 잔치자리들—어가네 — 그날에

25 2. D C $\sharp$ m F $\sharp$ m D E A

기름준—비된자만이 — 잔치자리들—어가네

8/6-12

1주 가정예배

#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예레미야 17:7-8



이 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3P



말씀 읽기 - 예레미야 17:7-8

- 07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 08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깨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기

Q1.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나눠보세요.

Q2.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맷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 말씀듣기

본문의 앞부분 예레미야 17:1-6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가 가득한 문화가 사회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문화가 퍼지고 죄악 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자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고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 없이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흙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력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길다면 멀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 믿으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정에게 더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내려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1

9

8/13-19  
2주 가정예배

#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요

## 예레미야 42:6



이 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3P



### 말씀 읽기 - 예레미야 42:6

06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 생각하기

- Q1. 나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 Q2.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말씀듣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복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는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집트로 갈지 유다 땅에 남을지를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렘 42:6.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집트로 도망합니다(렘 43:1-7).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미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두고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결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복이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가정이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복도 누리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2

9

8/20-26

3주 가정예배

# 분노가 다하기까지

에스겔 5:13



이 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3P



## 말씀읽기 – 에스겔 5:13

13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생각하기

- Q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 Q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말씀듣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의 일부를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머리카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전염병이 생기며, 기근이 생기며, 칼에 엊드러지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동안에 살아남은 자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탠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잊고 산 순간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3

9

8/27-9/2  
4주 가정예배

#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 에스겔 29:16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23P



### 말씀읽기 - 에스겔 29:16

16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 생각하기

Q1.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2.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 말씀듣기

유다(=이스라엘 민족)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랜 시간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들어쓰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붙잡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며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함락당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바벨론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성전의 보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의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했다가 이집트를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이를 본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다면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집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 유다는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라고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렘 29:11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는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처럼 굴욕적으로 보일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게 해주세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거짓 예언자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4

9

# 메모 MEMO

---

---



# 9

## SEPT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교인  
만남주일

추석



# 이달의 찬양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몽쳐있—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9      C      G      C      C/E      F      G      C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17      C      F      F      C      C/E      D/F#      D      G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섬기는 우리집

25      C/E      F      F      C      C      F      G      C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하루하—루

9/3-9

1주 가정예배

#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 다니엘 6:19-23



이 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35P



### 말씀 읽기 - 다니엘 6:19-23

- 19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 20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인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 22 나의 하나님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 23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생각하기

- Q1.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Q2.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말씀듣기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총애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갈대아인 총리와 고관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흠이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 굴에 던져져 죽을 수 밖에 없는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은 사자 굴에 찾아가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sup>26-27절</sup>.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저희들도 다니엘의 모습을 닮게 해주세요. 저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백하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9

1

9/10-16  
2주 가정예배

#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

## 요엘 2:13



이 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35P



### 말씀읽기 - 요엘 2:13

- 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 생각하기

- Q1.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어떨 것 같은지 함께 나누어보세요.
- Q2.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 말씀듣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의 삶을 기대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엘 2장에서 하나님의 때는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며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실한 마음은 사라지고 옷을 찢는 행위만 하는 보여주기식 회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U턴’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말이나 행위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만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9

2

9/17-23  
3주 가정예배

#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미가 6:6-8



이 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35P



## 말씀읽기 - 미가 6:6-8

- 06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 07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 08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생각하기

Q1.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Q2.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눠보세요.

# 3주 가정예배 –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 말씀듣기

‘나침반’의 역할을 알고 있나요? 나침반은 예부터 길을 찾거나 여행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배나 비행기의 진로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그 방향이 틀리다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방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6:8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

8

9

3

9/24-30  
4주 가정예배

#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 교회

마태복음 18:19-20



이 달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35P



## 말씀 읽기 - 마태복음 18:19-20

- 19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 생각하기

Q1.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Q2. 교회에 잘 맞는 친구가 있는 반면 잘 맞지 않고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맞지 않는 친구와 내가 어떤 관계가 되기 원하실까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는 친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도 함께 모인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기 어렵고 친해지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하나 되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차이를 넘어 주인과 종이 함께 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면 이방인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들은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맞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잘 맞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또한 저와 다른 친구를 품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 메모 MEMO



발행통권 | 37호  
발 행 일 | 2023년 7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획인 | 방덕종, 박홍준  
편집인 | 양동욱  
디자인 | 한수진  
집필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http://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